

집체(集體)의 가축을 위한 침술의 과학: 마오쩌둥 시기 중수의학의 탄생, 1956-1963*

이종식†

1. 들어가며

1986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농축어업부의 주최로 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은 “민간수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국무원(國務院)의 지시”(이하 “민간수의 지시”) 반포 30주년 기념좌담회였는데, 참석한 당정(黨政) 간부들과 수의학계 및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시종일관 오늘날의 중수의학(中獸醫學)을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이 정부 문건의 중요성을 강조해 마지않았다. 이들에 의하면, “민족 특색의 전통과학”이자 “우리나라[중국]의 과학문화 유산”인 중수의학은 아편전쟁 이래 반(半)식민지·반(半)봉건사회의 제약,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국민당(國民黨)의 반동적 통치로 인해 “엄중한 박해”와 홀대를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오쩌둥(毛澤東)과 주더(朱德) 등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일찍부터 농촌 혁명 근거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통수학과 민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1.43.1.143>

* 이 논문의 투고를 권유해주신 김태호 선생님, 논문 수정 과정에서 귀중한 제안과 영감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send my gratitude to Janet Browne, Warwick Anderson, Victor Seow, Eram Alam, John Hayashi, and Taylor Coplen for their valuable comments and suggestions on early drafts of this article. 더불어 이 논문은 Henry Luce Foundation/ACLS Program in China Studies와 Harvard Asia Center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 하버드 대학교, joy377@g.harvard.edu

간수의사의 가치를 알아봤으며, 당의 이러한 “원견탁식(遠見卓識)”은 집권 이후인 1956년 1월 5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에 의해 작성·공포된 “민간수의 지시”로 집대성되었다. 이 문건의 정신에 따라 당은 이른바 “중서결합 노선(中西結合的道路)”을 확립하여 근대과학과 의학(醫藥)지식으로 중수의학을 “보완(充實)”하고 “제고(提高)”했다. 이와 같은 당의 영명한 영도 아래 “조국의 수의학 유산”은 대대적으로 “발양”되어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수의과학의 진보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이다.¹ 중수의학에 대한 이러한 역사인식은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서사가 되어 이후 2006년 “민간수의 지시” 반포 50주년 기념회의, 2016년 60주년 기념 논단 등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반복되었다.²

그러나 공식적인 서사는 필자로 하여금 크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했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원견탁식”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실제로 얼마나 깊이 전통 수의학의 과학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른바 ‘당-국가(party-state)’가 당 외부의 ‘사회’ 전반을 압살했다고 이해되는 공산권 국가에서, 오로지 과학 활동은 당의 빈틈없는(seamless) 통제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³ 둘째, 비록 공식적인 서사는 중수의학에 대해 일종의 초역사적 ‘과학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른바 “중서결합”이 서로 다른 두 과학 분야의 자연스러운 통합이었던 것처럼 서술하지만, 전통적인 수의 지식체계와 근대적·생의학적(biomedical) 수의학 사이의 역사적 결합이 과연 그렇게 대등하고 상보적인 덧셈의 과정이기만 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는 중국 아카이브 문헌(檔案), 공간(公刊)된 중국공산당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문건, 내부 참고용 비공개 실험보고서, 학술간행물 및 일간지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전통수의학의 과학화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일견 과학과 사회주의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자 가치인 것처럼 생각된

1 楊宏道, “偉大創舉 千秋業績: 紀念國務院頒發加強民間獸醫工作的指示暨農業部召開全國民間獸醫座談會三十周年,” 『中獸醫學雜誌』 總44期 (1986), 3.

2 羅傳正·鍾秀平·唐素君·王成, “亟待建立中獸醫法規體系初探: 憶《國務院關於加強民間獸醫工作的指示》,” 『中國動物保健』 第19卷 1期 (2017).

3 공산당 치하의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상수, “1950년대 중국 혁명 연구의 다섯 가지 논쟁적 테제 述論,” 『사조』 85 (2015), 153-194. 또한 본문에서 제기한 것과 유사한 문제를 다룬 소련의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노경덕, “스탈린 시대 소련공산당과 학계 관계 재고: 세계경제체제정치연구소의 사례, 1927-1947,” 『서양사론』 110 (2011), 242-267.

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위당의 지도력과 혁명정치의 이데올로기가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이에 과학 또한 정치와 사회의 요구에 종속된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20세기 후반 반공적인 서구의 과학사학자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비판된 바 있다.⁴ 그러나 보다 최근의 사회주의 과학사 연구는 사회주의적 과학의 비전이 과학의 가치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 생산 현장 및 인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요구에 일관되게 봉사하고자 했다는 점, 기존의 엘리트주의적 사회적·지적 위계질서에 일정한 균열 혹은 전복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과학적 지식 생산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당 안팎의 다양한 행위자들(당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구를 지속했던 과학자, 외국인 전문가, 청년, 일반 농민 및 노동자 등)의 존재와 행위능력(agency)을 보여주고 있다.⁵ 이상의 사회주의 과학사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우선 중수의학의 탄생에 있어서 당의 정책과 통제력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당은 전통수의학의 과학화라는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했고, 몇 가지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역할이 일종의 전반적인 ‘테두리 설정’에 가까웠으며, 실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중수의학이라는 정치적·지적 구성물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
- 4 Zhores Medvedev, *The Rise and Fall of T. D. Lysenk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David Joravsky, *The Lysenko Affai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Dominique LeCourt, *Proletarian Science? The Case of Lysenko*, trans. by Ben Brewster (London: NLB, 1977); Valery N. Soyfer, *Lysenko and the Tragedy of Soviet Scie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 Nikolai Kremensov, *Stalinist Sc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5 Richard Levins and Richard Lewontin, *The Dialectical Biologis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Loren R. Graham, *What Have We Learned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Russian Experi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변학문, “1950-1960년대 북한 자립노선과 생물학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0:3 (2007), 138-183; Hugo Palmarola and Pedro Ignacio Alonso, “Tropical Assemblages: The Soviet Large Panel in Cuba,” in eds. by Eden Medina, Ivan da Costa Marques, and Christina Holmes, *Beyond Imported Magic: Essays o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Cambridge, Mass.: MIT Press, 2014), 159-179; Sigrid Schmalzer,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Kate Brown, *Manual for Survival: A Chernobyl Guide to the Futu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9); Arunabh Ghosh, *Making It Count: Statistics and Statecraft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나갔던 주체는 당과 국가라기보다는 일군의 수의 전문가들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고는 또한 이른바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 과학사라고 불리는 선행 연구의 흐름으로부터 일련의 문제의식을 빚지고 있다. 포스트콜로니얼 과학사 연구자들은 근대과학의 지구사(global history of modern science)를 서술함에 있어서, 어떠한 완성된 지식체계로서 ‘과학’이 17세기 이래 구미로부터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향해 일방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소위 ‘전파주의적(diffusionist)’ 과학사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⁶ 포스트콜로니얼 과학사 인식은 서구중심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으로 좁게 정의된 ‘과학’을 강박적으로 보위하거나, 역으로 비(非)근대적, 비서구적, 토착적(indigenous) 지식체계를 본질화(essentialize)하고 절대적으로 실체화(reify)하는 대신,⁷ 지식의 전 지구적 흐름(flow), 이질적인 것들의 접촉(contact)과 조우(encounter),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환(trading), 교류(exchange), 번역(translation), 뒤엉킴(entanglement)을 강조한다.⁸

이러한 과학사상(科學史像) 속에서 우리는 과연 중수의학을 어디에 위치시

6 전파주의 과학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George Basalla, “The Spread of Western Science,” *Science* 156 (May 1967), 611-622; Warwick Anderson, “Remembering the Spread of Western Science,” *Historical Records of Australian Science* 29 (April 2018), 73-81.

7 이러한 흐름은 ‘포스트콜로니얼’ 과학사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디콜로니얼(decolonial)’ 과학사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각주 8을 참고.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lapperton Mavhunga, “Introduction,” in ed. by Clapperton Chakanetsa Mavhunga, *What Do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ean from Africa?* (Cambridge, Mass.: MIT Press, 2017), 1-28. 또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전략적 본질주의(strategic essentialism)’라는 개념을 참고.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London: Routledge, 2nd ed., 2007), 73-75.

8 Warwick Anderson, “Postcolonial Techno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32:5/6 (October 2002), 643-658; Kapil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Circu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South Asia and Europe, 1650-1900*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7); Fa-ti Fan, “The Global Turn in the History of Science,”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6 (June 2012), 249-258; Ralph Bauer and Marcy Norton, “Introduction: Entangled Trajectories: Indigenous and European Histories,” *Colonial Latin American Review* 26:1 (April 2017), 1-17.

킬 수 있을까? 당의 공식적인 서사는 전파주의적 과학사 인식에 대항하여 하나의 단순한 안티테제(antithesis)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중수의학이란 먼 과거에서부터 줄곧 유의미한 ‘과학’으로서 중국에 존재해왔으며, 19세기 후반 이래로 서구 근대과학의 ‘전파’라는 도전 앞에 잠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서수의’를 생산적으로 재해석·흡수하여 전 세계 수의과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편으로 중수의학의 초역사적 과학성과 단절 없는 발전을 당연시하는 중화주의적인 서사로도, 다른 한편 이와는 정반대로 서수의와 과학적 방법론을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둔 전파주의적 서사로도, 중국의 전통수의를 과학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포스트콜로니얼 과학사의 관점에서 세계 각지의 전통적인 지식체계를 근대화·과학화하려는 시도들을 검토한 연구들과 연계하면서, 그 분석틀을 중수의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⁹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 중국수의학 일반과는 대별되는 고유명사이자 근대화된 중국 민간수의학의 한 형태로서 ‘중수의학’이라는 혼종적인 지식체계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행위자들의 기획, 노력, 결실을 근대주의적 냉소와 중화주의적 찬양 없이 고찰하고자 한다.¹⁰

9 이러한 각도에서 최근 프랑스 식민주의 의학과 크메르 전통의학의 상호작용, 서양의학 혹은 생의학(biomedicine)의 위협에 대항한 중국의학의 자기혁신 노력,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 의학의 근대화 및 과학화 등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Sokhieng Au, *Mixed Medicines: Health and Culture in French Colonial Cambod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Sean Hsiang-lin Lei, *Neither Donkey Nor Horse: Medicine in the Struggle over China's Moder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레이상린 자음, 박승만, 김찬현, 오윤근 옮김, 『비려비마: 중국의 근대성과 의학』 (인다, 2021)]; Projit Mukharji, *Doctoring Traditions: Ayurveda, Small Technologies, and Braided Sci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한편, 근현대 한의학사 연구 및 한의학의 과학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아카넷, 2008); 김종영, 『하이브리드 한의학: 근대, 권력, 창조』 (돌베개, 2019).

10 본고에서 ‘전통수의학’과 ‘민간수의학’은 동일한 지식체계나 수의사 집단을 지칭함을 밝혀준다. 둘은 모두 ‘서수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또한 사료 속 행위자들이 ‘과학화(科學化)’와 ‘근대화(現代化)’를 사실상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한편, ‘중수의(학)’은 ‘전통수의학(학)’ 및 ‘민간수의학(학)’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이 중국의학 일반(Chinese medicine)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 것처럼(각주 12 참고), 본고에서 ‘중수의(학)’은 과학화·근대화된 중국의 전통·민간수의학이라는 의미로 좁게 정의되며, ‘중서수의결합(中西獸醫結合)’의 결과물로 이해해도

공산당 집권 전후 전통수의학을 근대화·과학화하려 했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언어를 막론하고 그리 많지 않다.¹¹ 조금 더 관심의 범위를 넓혀 중국 근현대 수의학의 역사 일반을 살펴보아도, 근대적인 수의 교육기관의 설립사를 다루고 있는 리칭산(李靑山)의 2015년 중국농업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제외하면, 체계적인 역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¹² 그러나 그 양적·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중국 수의학사를 의학사, 특히 중의학(中醫學)의 역사, 그리고 중국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연구들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도 이러한 방향성에 발맞추어 중수의학의 탄생 과정을 20세기 근대 중국의 학(Chinese medicine)¹³의 역사와 비교함으로써, 인의(人醫)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이 수의의 영역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혹은 다르게 펼쳐졌는지 살펴볼 것이다.¹⁴ 또한 본고는 중국공산당의 집체농업(集體農業, collective agriculture) 정책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 속에서 민간수학과 중수역사들의 존재 가치가 재고되었으며, 이 집체 농업의 추진이라는 맥락이야말로 중수의학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고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

무방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중수의학의 구성 과정은 ‘중국 민간·전통수의학의 과학화·근대화 과정에 다름 아니다.

11 최근 중국 대륙학계에서 관련 연구논문이 드물게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 朱 緋·冠楠, “廢止中醫案對中獸醫發展的影響與獸醫國藥治療研究所的創辦”, 『中國農史』, 2017年 第2期, 43-50.

12 李靑山, “中國近代(1840-1949年)獸醫高等教育溯源及發展”, 中國農業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13 본고는 학계의 관례에 따라 역사상 존재했던 중국의 전통의학 일반을 ‘중국의학(Chinese medicine)’이라고 지칭한다. 19세기 후반 이래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국의학을 근대화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서술하는 역사를 ‘근대 중국의학의 역사(histories of modern Chinese medicin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의학(TCM)은 보다 엄격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여러 형태의 근대적 중국의학 중에서도 중국공산당 집권 이후 1950년대에 확립된 특정한 지식체계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다. 따라서 중의학의 역사는 근현대 중국의학의 역사의 일부일 뿐, 후자를 전자로 환원할 수는 없다.

14 근대 중국의학 및 중의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Kim Taylor, *Chinese Medicine in Early Communist China, 1945-1963: A Medicine of Revolution* (London: RoutledgeCurzon, 2005); TJ Hinrichs and Linda Barnes eds., *Chinese Medicine and Healing: An Illustrated Histo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Sean Lei, op. cit.; Bridie Andrews, *The Making of Modern Chinese Medicine, 1850-1960* (Vancouver: UBC Press, 2014).

받지 못했던 축산·수의 분야의 연구 공백을 부분적으로나마 메움으로써 중국 근현대 농업사 및 사회경제사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¹⁵

이어지는 절에서는 1956년 공식화된 중수의학의 등장에는 1949년 건국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민간수의사들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라는 전사(前史)가 있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1956년보다 몇 해 앞서 확립되었던 중의학이라는 모델이 중요한 선례가 되어 민간수의학의 과학화 및 중수의학의 탄생 과정에 필요한 각종 언어, 개념, 방법론을 제공했음을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195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농업 집체화가 어떻게 중수의학의 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맥락이자 조건이 되었는지 검토한다. 이어서 민간수의학의 과학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었는지 분석해 들어갈 것이다. 이 작업은 서양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과학자, 원로 민간수의사, 중국공산당의 중하급 ‘수의간부(獸醫幹部)’ 등 넓은 의미의 수의학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전근대 수의 고전 문헌에 등장하는 각종 개념과 이론, 중의학의 핵심개념인 변증론치(辨證論治), 수의침구술(獸醫針灸術), 탕약, 화학 약물, 엑스레이 등을 두루두루 동원하여 대규모 실험을 설계·수행함으로써 중수의학적 치료법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2. 중수의학의 전사(前史), 1944–1956

1956년 1월 5일, 중국 전역의 전통수의사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문건인 “민간수의 지시”가 전국 당정 기관으로 하달되었다.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에 의해

¹⁵ 사회주의 시기 중국 농업 일반에 대해 본고는 주로 다음 문헌들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Edward Friedman, Paul G. Pickowicz, and Mark Selden, *Chinese Village, Socialist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Huang Shu-min, *Spiral Road: Change in a Chinese Village through the Eyes of a Communist Party Leader* (Boulder: Westview Press, 1998); Edward Friedman, Paul G. Pickowicz, and Mark Selden, *Revolution, Resistance, and Reform in Village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5); Jacob Eyferth, *Eating Rice from Bamboo Roots: The Social History of a Community of Handicraft Papermakers in Rural Sichuan, 1920-20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9); Anita Chan, Richard Madsen, and Jonathan Unger, *Chen Village: Revolution to Glob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Yi Wu, *Negotiating Rural Land Ownership in Southwest China: State, Village, Famil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작성된 이 문건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는 약 19만 명의 수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주요 도시에 산재한 근대적 수의사의 수는 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데에 반해, 농촌 지역에는 약 180,000명 이상의 이른바 ‘민간수의사’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민간수의사란 청대(清代) 마의(馬醫)의 후손으로 집안 대대로 수의업에 종사한 전업 수의사와 농업 노동 및 수의 활동을 병행했던 아마추어 수의사 모두를 포괄하는 느슨한 개념이다. 비록 그 대부분은 중공 집권 이전에 정규 수의과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침과 약초를 활용하여 가축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저우언라이는 민간수의사의 역량을 긍정하며, 그들이 “가축 역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에 경험이 많고, 농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가축 보호와 [축산업]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세워왔다고 치켜세웠다.¹⁶ 따라서 민간수의사들은 마땅히 중국공산당과 인민 군중의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며, 차체에 국무원은 ‘단결, 활용, 교육, 제고(提高)’로 요약되는 명확한 민간수의 정책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문건은 밝히고 있다. 요컨대, 1956년을 기점으로 당과 국가는 전통수의사와 ‘단결’하고, 그들을 사회주의 축산업 발전에 ‘활용’하고, 동시에 ‘교육’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¹⁷

20세기 전반 내내 대체로 전통수의사가 국가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후진적’이고 ‘미신적’인 존재로 낙인찍혀 왔음을 감안할 때, 국무원의 1956년도 지시는 분명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과 국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어 일방적으로 수의사들에게 하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무원의 지시는 옌안(延安) 시기 이래 누적된 중국공산당과 농촌의 전통수의사들 사이의 다면적인 상호관계가 종합된 결과였다.¹⁸ 마오쩌둥은 일찍이 1944년 “산간농 변

16 周恩來, “國務院關於加強民間獸醫工作的指示”(1956. 1. 5.), 甘肅省檔案館, 222-001-0108-0001. 17 같은 글.

18 옌안시기란 중국공산당이 대장정(大長征) 이후 1935년부터 1948년까지 산시성 북부 옌안에서 중국혁명을 지도했던 13년을 일컫는다. 이 시기 중국혁명의 원형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옌안시기 혹은 1949년 이전 중국혁명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Mark Seldon, *The Ya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Yung-fa Chen, *Making Revolution: The Communist Movement in Eastern and Central China, 1937-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Joseph W. Eslerick, “Ten Theses on the Chinese Revolution,” *Modern China* 21:1 (January 1995), 45-76; Elizabeth J. Perry, *Anyuan: Mining China's Revolutionary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구(陝甘寧邊區)의 사람과 가족의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문제는 비록 “[신의(新醫)가] 구의(舊醫)에 비해 고명(高明)하긴 하지만 오직 신의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오쩌둥은 다수의 “구의 및 구식수의(舊式獸醫)와 연합”하고 “그들이 진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중국혁명의 요람인 옌안 내의 인민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⁹

그러나 이와 같은 최고 지도자의 당위적인 언설은 실무 현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국공내전의 막바지였던 1949년 8월, 옌안 시기 중국공산당의 농정을 책임졌으며 또한 화북연합대학(華北聯合大學) 농학원 원장이기도 했던 러텐위(樂天宇)²⁰는 마오쩌둥의 주장에 호응하면서, 구식 수의사들을 “개조”하고 그들의 지식을 “점진적으로 과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짧은 시일 내에 대량의 [근대적] 수의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면역] 혈청과 서양의 약(西藥)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통수의사들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²¹ 즉, 러텐위를 비롯한 다수의 당내 인사들은 기껏해야 일종의 불가피한 임시방편으로서 전통수의사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민간수의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건국 직후인 1950년 초까지도 당정 간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는데, ‘단결’이라는 명목으로 당과 국가는 단순히 민간수의사들의 각종 비법(秘方), 즉 그들 가문에 비밀리에 전해져오던 유용한 가족 치료법을 일방적으로 추출하길 원했던 것이다.²² 다시 말해, 대체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하던 시기,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전통수의사 집단이란 국가의 긴급한 축산·수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이유로 마지못해 연대해야 했던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집권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은 민간수의사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채, 혹은 그들이 신생 혁명국가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점할 것인가

19 毛澤東, “文化工作中的統一戰線”(1944. 10. 30.), 『毛澤東選集』 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1011-1013.

20 옌안 시기 중국공산당의 과학 정책을 주도했던 러텐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Laurence Schneider, *Biology and Revolution in Twentieth-century China*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3), 104-108, 117-163; Sigrud Schmalzer, op. cit., 36-38.

21 樂天宇, “解放區的農業科學工作”, 『人民日報』, 1949. 8. 27.

22 王孔文, “農業大學在八個月中建立獸醫站九處, 八個月治療檢查病畜萬頭, 團結與改造舊獸醫, 建立農村防疫基地”, 『人民日報』, 1950. 2. 6.

지 공식화하지 않은 채, 그들의 지식과 역량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 양, 염소 등에 의존한 유목적인 삶의 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서북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전통수의사의 영향력이 특히 강했다.²³ 이들은 1952년경 수의사 협회를 조직하는 한편,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렛대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축보호 애국운동(愛國保畜運動)’을 조직했다.²⁴ 동시에 서북의 전통수의사는 온도계나 화학 소독제 등 ‘서양’의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근대과학의 외피를 두르고자 했다. 오랜 현장 경험과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민간수의사들은 능동적으로 당과 국가를 향해 자신들이 가축 전염병과의 ‘전투’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문 인력임을 납득시키고자 했던 것이다.²⁵

민간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주장하자, 이에 대응하여 리텐위도 전통수의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그는 “중수의사들(中獸醫)”과 “서수의사들(西獸醫)”이 “상호 간의 발전(互相提高)”을 위해 서로 “연합”하고 각자의 전문지식을 상대방과 “교류”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²⁶ 리텐위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전통수의사들은 ‘서수의사(서양 수의학을 실천하는 중국인 수의사)’와 대별되는 의미에서 ‘중수의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민간’ 치료법의 효과에 방점을 둔 ‘민간수의사’라는 표현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반면,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했던 ‘구수의(舊[式]獸醫)’라는 개념은 대체로 1953년 이후 대체로 자취를 감추었다. 1956년도 국무원 지시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즉, 민간수의사에 대한 국가의 ‘단결, 활용, 교육, 제고’라는 정책은 결코 일방적인 하향식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연안 시기 이래 역사적으로 누적된 공산당과 민간수의사 간의 쌍방향적 관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혁명사회에서 민간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될수록, 불가피하게 공산당 지도자들 사이에서 민간수의사와 그들의 전문

23 ‘서북’이란 산시, 닝샤, 간쑤, 신장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피터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중국의 서진: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길, 2012); 제임스 밀워드 지음, 김찬영·이광태 옮김, 『신장의 역사: 유라시아의 교차로』 (사계절, 2013).

24 “西北組織中獸醫參加愛國保畜運動”, 『人民日報』, 1953. 3. 15.

25 “西北區三年來組織中獸醫工作概況和今後的工作意見”(1953. 10. 30.), 甘肅省檔案館, 222-001-0033-0005.

26 “農大獸醫實習工作站, 召開會議總結工作經驗”, 『人民日報』, 1950. 7. 8.

지식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질문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전통의학(人醫)에 대한 접근법이 하나의 선례로서 주요한 준거가 되었다. 중의학사 연구자 김 테일러(Kim Taylor)에 의하면, 1953-56년이 중의학의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였다.²⁷ 이 때 마오쩌둥은 “서의가 중의를 학습한다(西醫學習中醫)”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중의 정책을 확립했다. 그 요지는 양의사와 “학식이 있는 중의사(有學問的中醫)”가 함께 전통의학의 근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후자가 전자로부터 서양의학을 배워야 하는 것 이상으로 전자가 후자로부터 전통의학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²⁸ 마오쩌둥은 양의사와 소수의 엘리트 중의사 간의 이와 같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전통의학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 혹은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195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중의 근대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의 근대화란 중국의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과학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변별하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일부 논자들에게 이 기획은 조금 더 야심찬 것, 즉 중의와 서의라는 이분법 자체를 초월하여 “하나의 새로운 의학(新醫)”을 창조하는 과정이었다.²⁹ 이러한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민공화국 치하 중의학은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형태의 중국의학과는 다른, 일종의 ‘근대화된’ 지식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과학화되고 ‘진보’된 형태로서의 중 의학을 그 이전 시기의 중국의학들과 구별 짓기 위한 새로운 용어와 표현들이 1955년을 전후하여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후자는 ‘고대의학(古代醫學)’이나 ‘조국의 의학 유산(祖國醫學遺產)’이라는 표현으로 통칭되었다. 본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중의(학)’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전자만을 뜻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마찬가지로 1955년경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약칭 TCM)”이라는 영문 표현이 최초로 중국과학원의 영문 잡지에 등장했다.³⁰ 이후 TCM

27 Taylor, op. cit., 63.

28 毛澤東, “1954年對中醫工作的指示”(1954. 7. 30.), 『毛澤東思想萬世』(武漢: 不明, 1968), <https://www.marxists.org/chinese/maozedong/1968/3-055.htm> (2020. 4. 14. 접속).

29 Taylor, op. cit., 70-75, 95-108.

30 『中醫雜誌英文版』의 다음 홈페이지 참고 <http://www.journaltcm.com/index.php?module=Pages&func>

은 영어권 국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보건의로 원칙에 부합하는 근대화된 중국의학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립되었다.³¹ 중의학의 탄생과 발전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던 중국공산당은, 1956년 국무원의 “민간수의 지시”가 반포될 때 즈음 이미 ‘중수의(학)’ 혹은 ‘Traditional Chinese Veterinary Medicine(약칭 TCVM)’이라고 불리게 될 새로운 지식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일련의 청사진과 개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

중국어 개념 ‘중수의’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필자의 관건으로 ‘중수의’라는 개념은 1956년 이전까지 거의 전적으로 전통적인 수의사를 막연하게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1956년 이후 비로소 ‘과학화된 전통수의학’이라는 의미가 추가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중의’가 사회주의적으로 근대화된 중국의학이라는 의미로 고정되었던 1955년 말과 1956년 초를 거치며, 그 수의학적 대칭개념으로서 ‘중수의’ 개념에도 유사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1956년 이후 ‘중수의’란 전통수의사들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고양된 그들의 지식체계까지도 의미하는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의미의 ‘중수의’ 개념은 1956년도 국무원 지시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는데(대신 ‘민간수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중국목축수의학회(中國畜牧獸醫學會)가 새로이 ‘중수의소조(中獸醫小組)’라는 하부조직을 창설할 때 비로소 최초로 사용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요컨대, 비록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개념으로서 ‘중수의(학)’이 시대를 초월하여 서양 수의학과 구별되는 중국의 전통수의학 일반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중수의(학)’이란 이상과 같은 특정한 전사(前史)를 바탕으로 하여 1956년 이후에 공산당의 정책적 후원하에 전통수의학의 일부를 근대화·과학화함으로써 구성한(construct) 일련의 새로운 지식체계를 의미한다.³²

³¹ $\text{=display\&pageid=1}$ (2021. 1. 25. 접속).

³² Taylor, *ibid.*, 80-84.

³³ ‘중의’의 경우, 1955-6년 시기에 곧바로 그 공식적인 영문 번역어인 TCM이라는 개념이 외부 세계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해외의 관심을 덜 받았던 ‘중수의’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 합의된 영문 번역어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전통수의학 분야의 가장 저명한 학술지인 『중수의 의학 잡지(中獸醫醫藥雜誌)』가 개혁개방 이후 잡지의 영문명을 ‘the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Veterinary Medicine’으로 확정하고 1986년 1기부터 그 표지에 영문 잡지명을 병기하기 시작했다. 중국어 개념 ‘중수의(학)’의 영문 번역어가 TCVM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 이후로 보인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영어권 학계에서 1986년 이전인

3. 사회주의 농업과 중수의학, 1955-1959

비록 중수의학이 성립되는 과정이 중의학의 역사와 상당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전자는 농업과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를 드러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공산당은 줄곧 농업 생산에 있어서 동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우(耕牛)의 노동, 돼지의 분변, 고기, 계란, 우유, 모피, 가죽, 양털 등은 중국의 농업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간주되었다.³³ 수의사 집단은 바로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주력 역량이 되어야 했다.³⁴ 중의학이 무엇보다 인민의 생명과 복리에 관한 기초 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으로 생각되었던 반면, 중국공산당의 중수의 정책은 언제나 인민, 특히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일환으로서 고려되었다. 농축산업의 발전이 곧 중수의학의 존재 가치와 유용성을 정당화하는 궁극의 척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중수의학은 농업 발전에 종속된 “응용과학”이었던 것이다.³⁵ 응용과학으로서 전통 수의학을 과학화하는 과정이 임상상의 효용에 더욱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은 다음 절에서 후술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민간수의 지시”를 전후하여 보다 거시적인 ‘사회주의’적 집체 농업경제의 발전 계획 속에서 중수의학과 민간수의사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 중국의 사회주의 농업 집체화라는 구체적인 조건 속에 중수의학의 탄생을 위치시키기 전에, 우선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의학과 농업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의학과 농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고방식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마오 시기(1949-1976)의 ‘중수의(학)’를 TCM으로 번역하고 지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중의’를 TCM으로 번역하는 관행이 워낙 뿌리 깊게 확립되어 있다 보니, 편의상 1956년 이후의 ‘중수의(학)’ 또한 일반적으로 TCM으로 표현되고 있다.

33 周恩來, “國務院關於增產生豬的指示”(1955. 12. 7.), 北京市檔案館, 088-001-00323-0033; “中共中央關於1959年國民經濟計劃的決定”(1958. 12. 1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11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4), 624-646; 蔣次昇, “繼承和發揚祖國獸醫學遺產”, 『人民日報』, 1959. 5. 8.

34 蔣次昇, “繼承和發揚祖國獸醫學遺產”.

35 蔣次昇, “中西獸醫結合的回顧與對策”, 『中獸醫學雜誌』, 1992年 第4期, 1-3.

만, 수의학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 내 전문분야로서 수의학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농정(農政)과 본격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했던 것은 불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이었다. 19세기 이전까지 수의학은 지역과 문화를 막론하고 거의 전적으로 농업보다는 군(軍)과 관련된 전문분과로서 존재했다. 수의사란 다른 아닌 군마와 군용 역축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였던 것이다.³⁶

19세기를 거치며 보다 기계화된 군사 및 교통 기술이 발전하자, 전쟁 수행에 있어서 동물의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했다. 이에 군 소속 수의사의 역할도 함께 축소되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전문 수의사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쓸모를 새롭게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수의사 집단은 당시 부상하고 있었던 공장식 농축산업과 근대 농업과학 및 영양학의 담론에 주목했다. 수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이 주요 가축 전염병을 통제하고, 각 민족국가의 농업·축산·낙농 생산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보장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⁷ 넓게 보면, 1950년대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수의학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 또한 근대 민족국가, 대규모 농업, 수의 전문가 집단 사이의 공진화(co-evolution)라는 20세기적 현상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6 수의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Joanna Swabe, *Animals, Disease and Human Society: Human-Animal Relations and the Rise of Veterinary Medicine* (London: Routledge, 1999); 천명선, 『근대 수의학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2008); Karen Brown and Daniel Gilfoyle eds., *Healing the Herds: Disease, Livestock Economies, and the Globalization of Veterinary Medicine*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2010); Karen Brown, "Environmental and Veterinary History: Some Themes and Suggested Ways Forward," *Environment and History* 20:4 (2014), 547-559. 국가, 수의사, 전쟁, 농업의 길 항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bigail Woods, "Breeding Cows, Maximizing Milk: British Veterinarians and the Livestock Economy, 1930-50," *Healing the Herds*, 61-67; James L. Hevia, *Animal Labor and Colonial Warfa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37 수의학사, 특히 가축 전염병에 관한 최근 주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Clive Spinae, *Cattle Plague: A History* (New York: Springer, 2003); Abigail Woods, *A Manufactured Plague: The History of Foot-and-Mouth Disease in Britain* (London: Routledge, 2004); Giorgio Miescher, *Namibia's Red Line: The History of a Veterinary Settlement Bord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Natalie Porter, *Viral Economies: Bird Flu Experiments in Vietna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1955년 말의 시점에서 마오쩌둥은 토지개혁의 성공과 뒤이은 농업 집체화의 신속한 진전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³⁸ 그는 본래 완고한 지주 계급을 소멸시키고, ‘봉건적’인 생산양식을 뿌리 뽑아 5억 5천만 농민들을 집단적 생산 공동체 속으로 조직해내고, 농업 생산 및 분배에 대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제도화하는 데까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른바 ‘농업의 사회주의 개조’는 마오쩌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갔다. 1955년까지 전체 농촌 인구의 60% 이상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농업 합작사(農業合作社)에 가입했다.³⁹ 이와 같은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에 더하여, 공업 부문에서도 제1차 5개년 계획(1953-57)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⁴⁰ 낙관에 가득 찬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주의가 ‘고조기(高潮)’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955년 11월에 반포된 이른바 “농업 17조”는 마오쩌둥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문건이었다. 문건에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농업 발전을 더욱 급속하게, 그러나 균형을 잘 갖추어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축산과 수의는 17개 조 가운데 제6조로 언급되었다. 공산당 집권 이전에 축산·수의 영역은 쌀이나 밀 등 주곡 작물의 경작보다 등한시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워 소, 말, 당나귀, 돼지, 양, 닭, 오리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종해야 하며, 특히 새끼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마오의 생각이었다.⁴¹ 사회주의 농업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기획의 배후에는 집체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축산업의 신속한 발전에 있어서 유리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 합작사가 물질 자원 일체

38 1953년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일단락된 중국의 농업 집체화(collectivization)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조직 형태로 중국 농촌을 재조직화했다. 가장 낮은 단위인 ‘생산대(生產隊)’는 평균적으로 30호, 약 145명을 하나의 공동 생산·소비 공동체로 묶은 조직이었다. 그보다 상급 단위인 ‘생산대대(生產大隊)’는 220호, 980명 정도의 규모로 약 7개의 생산대를 포괄하여 구성되었다. 가장 규모가 큰 집체는 ‘인민공사(人民公社)’라고 명명되었다. 한 공사의 전체 사원(社員)은 약 15,000명 정도였다. Andrew G. Walder, *China Under Mao: A Revolution Derai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40-60.

39 中共中央政治局, “1956年到1967年全國農業發展綱要草案”(1956. 1. 2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第8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4), 47.

40 제1차 5개년 계획 전후 통계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runabh Ghosh, *Making it Count: Statistics and Statecraft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41 毛澤東, “徵詢對農業十七條的意見”(1955. 12. 21.), 『毛澤東選集』5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7), 260-263.

의 생산·분배 단위가 되어, 인간의 식량, 동물의 사료, 인간과 동물의 거름 등이 통일적·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즉, 마오쩌둥과 그의 동료들이 보기에, 농업 집체화야말로 대규모 축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이었던 것이다.⁴²

1956년 1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마오쩌둥의 “농업 17조”를 토대로 “1956-1967년 전국 농업 발전 강요 초안(1956年到1967年全國農業發展綱要草案)”을 작성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문건은 향후 12년에 걸친 농업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축산·수의 부문과 관련하여 이 문건은 “농업 17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충했다.

소, 말, 노새, 당나귀, 낙타, 돼지, 양, 다양한 가금류 동물들을 보호하고 육종해야 하며, 어미와 새끼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축의 품종을 개량해야 하며, 국영농장을 발전시켜야 한다.⁴³

그뿐만 아니라, “1956-1967년 전국 농업 발전 강요 초안”은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는 축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수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건은 야심만만하게 “상황에 따라 향후 7년 혹은 12년 내”에 “우역⁴⁴, 돼지열병, 조류독감, 돼지 낭충증(猪囊蟲), 우폐염(牛肺疫), 구제역, 양 이질(羊痢疾), 양 개선충병(羊疥癬), 마비지(馬鼻疽) 등 가장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들을 소멸”시킨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농촌 지역(農區)과 목축 지역(牧區)의 모든 현(縣)에 ‘축목 수의 공작참(畜牧獸醫工作站)’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목축 및 축산 분야에 잔뼈가 굵은 현지 당 간부들과 민간수의사로 하여금 이 기구를 관장하게 했다.⁴⁵

이후로 수년간 국가는 “농업 발전 강요”의 방향으로 축산·수의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며, 1958년 이후 대약진운동과 뒤이은 대기근(1959-1961) 같은 위기에

42 周恩來, “國務院關於增產生豬的指示”.

43 中共中央政治局, “1956年到1967年全國農業發展綱要草案”, 46-60.

44 우역 근절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아파노우치 카즈야 지음, 노정연·천명선 옮김, 『우역의 종식: 근대 전염병 연구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2016); Amanda Kay McVety, *The Rinderpest Campaigns: A Virus, Its Vaccines, and Global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 中共中央政治局, 앞 글, 46-60; 周恩來, “國務院關於加強民間獸醫工作的指示”.

도 불구하고, 국가와 수의사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갔다. 1958년 11월 중국공산당은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中共八屆六中全會)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곡농업과 축산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⁴⁶ 1959년 5월, 다음 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장차성(蔣次昇)이라는 수의과학자는 집체화가 중국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주곡과 목축·축산 생산의 균형이 일종의 지역적 분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⁴⁷ 즉, 비옥한 저지대 농토는 주곡 작물 농사에 할애하는 한편, “광활한 초원과 산악 및 구릉지대”에 집중적으로 목축·축산 전문 집체와 국영목장을 설치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⁴⁸

중수의학이 체계적인 지식체계로 부상하고 민간수의사들이 국가의 농업 발전 계획 내에서 공식적으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처럼 1950년대 중후반의 농업 집체화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여기서 집체 농업의 추진은 단순한 배경에 그쳤다가보다 중수의학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자 조건이었음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테일러와 레이샹린(雷祥麟, Sean Lei)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중국의학의 과학화는 주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서의 집단과 엘리트 중의 집단은 별도의 세력으로서 상호 적대하는 가운데 대체로 서의의 공세, 중의의 수세라는 구도 속에서 중국의학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다.⁴⁹ 비록 ‘중서의 결합’과 관련하여 소위 ‘맨발의 의사(赤腳醫生)’의 역할이 최근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맨발의 의사와 그들이 책임지는 농촌 의료는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1차 의료’ 제도로서, 제도화된 엘리트 중의학의 세계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⁵⁰

반면, “민간수의 지시”와 “1956-1967년 전국 농업 발전 강요 초안”에 드러난 것처럼, 그리고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전통수의학의 과학화 과정에서는

46 “中共中央關於1959年國民經濟計劃的決定”, 628.

47 그러나 중국 각지의 다양한 인문지리적 조건하에서 주곡농업, 원예농업, 축산농업, 기타 농촌 부업 간의 이상적인 균형을 맞추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일례로 다음을 참고. Eyferth, op. cit.

48 蔣次昇, “繼承和發揚祖國獸醫學遺產”.

49 Taylor, op. cit.; Lei, op. cit.

50 Daqing Zhang and Paul Unschild, “China’s Barefoot Doctor: Past, Present, and Future,” *The Lancet* vol. 372 (2008), 1865-1867; Xiaoping Fang, *Barefoot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in China*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12).

농축산업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수의사들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강조되었다. 전통수의사와 서수의사의 관계 또한 보다 협력적이었으며, 특히 일부 농촌 출신 원로 민간수의사는 서수의사와 더불어 중수의학의 성문화(codification)와 제도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요컨대, 중수의학의 과학화 과정에 있어서 서구적 지식의 소유자와 전통적 지식의 담지자 간의, 혹은 도시 행위자와 농촌 행위자 간의 위계적 격차가 중의학의 선례보다 더욱 좁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중수의학이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와 직결된 지식체계여야 한다는 당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전통수의학을 근대화했는지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전통수의학 과학화의 착수

앞서 살펴본 중의학의 선례와 대동소이하게, 당과 국가는 서양 수의학을 실천하는 ‘서수의’,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축산·수의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중하급 공산당원인 ‘수의간부’, 그리고 “비교적 기술 수준이 높고 일정 정도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민간수의를 전통수의학의 근대화 및 중수의학의 확립의 주체로 호명했다. 또한 “서의가 중의를 학습한다”라는 모델을 따라, “서수의가 중수의를 학습한다(西獸醫學習中獸醫)”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의 방향성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지시와 정책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서의와 중의의 관계와 달리, 농업 집체화라는 맥락 속에서 농촌의 현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통하지 못했던 극소수의 서수의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민간수의사들과 반목 혹은 경쟁하기보다는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이에 서수의사와 수의간부는 기꺼이 “새로운[근대적] 과학 이론과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수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자 했으며, 민간수의사와 단일대오를 이루어 전통수의학을 “연구하고 종합(總結)”하기를 희망했다. 그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전통수의학의] 치료법들을 능동적으로 널리 소개하고 보급(追廣)”하다 보면, 언젠가 중수의와 서수의가 결합된 중국 고유의 “새로운 수의학의 학풍을 창조”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⁵¹

이상을 골자로 하는 민간수의학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고는 다음 네 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장츠성(1914-2004)은 서양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로서 사회주의의 이상에 동조하여 중수의학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일군의 수의과학자들을 대표한다.⁵² 그는 1948년 아이오와주립대학교(Iowa State University)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50년대 중엽 이래로 줄곧 민간수의학의 과학화에 헌신했다. 당과 국가는 장츠성 같은 서수의들이 민간수의학 근대화 프로젝트에 과학적 권위를 부여해줄 것이라 기대했다.⁵³

위관(于船, 1924-2005)은 공산당 내 수의간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民国 시기에 육군수의학교(陸軍獸醫學校, 베이양마의학당(北洋馬醫學堂)의 후신)에서 근대적 수의학을 수학했다. 이후 1947년부터 중국공산당의 축산·수의 전문 간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농업대학에 자리를 잡아 연구 및 후학 양성에 힘쓰며 평생 중수의학의 정립과 발전을 주도했다. 당과 국가는 위관을 위시한 수의간부들이 그 전문지식의 깊이의 측면에서 장츠성 같은 수의과학자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과 공산당을 향한 수의간부의 충성심을 감안할 때, 당과 국가는 이들을 전통수의 근대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산계급 출신이 많은 서수들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보완하길 원했다.⁵⁴

산시성(山西省) 출신의 가오궈징(高國景, 1893-1964)과 산시성(陝西省)의 추이디성(崔滌僧, 1885-1966)은 원로 민간수의사들을 대표했다. 서수의사들과 국가는 이들의 심오한 지식과 막힘없는 수의술이 중수의학을 정립하는 데에 반드시 동원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가오궈징과 추이디성은 살아있는 전통수의 지식의 보고로서, 이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 가운데에서 그 정수를 추려내 근

51 周恩來, “國務院關於加強民間獸醫工作的指示”; 蔣次昇, “繼承和發揚祖國獸醫學遺產”; 蔣次昇, “黨的中獸醫政策的勝利,” 『人民日報』, 1960. 4. 15.

52 그러나 그는 끝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공산당에 의해 승인된 8개의 민주당파 중 하나인 구삼학사(九三學社)의 당적을 갖고 있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다음을 참고. “蔣次昇先生逝世”, http://www.zjjs.org/news_show.php?ShowId=13671 (2021. 1. 25. 접속).

53 장츠성의 삶과 경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蔣次昇,” 『中獸醫學雜誌』, 2014年 第3期, 5-6.

54 위관의 삶과 경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于船, 『于船文集』(北京: 中國農業大學出版社, 2003), 563-576.

대과학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이 민간수의학의 근대화 및 중수의학의 정립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이다.⁵⁵ 가오귀징과 추이디성 같은 원로 민간수의사들의 참여와 도움이 없었다면 장츠성과 위촨 등은 민간수의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츠성과 위촨의 기꺼움과 노력이 없었다면, 전통수의학적 지식과 실천은 고령의 원로 수의사들의 죽음과 더불어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네 명의 핵심 인물들과 이들처럼 민간수의 과학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수의과학자들, 수의간부들, 원로 민간수의사들을 ‘중수의학의 창시자 집단’이라 부르하고자 한다.⁵⁶

중국 전통수의학을 중수의학으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 결과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근대과학이라는 언어로 써져야 했다. 오늘날의 중화주의적 공식 서사와는 달리, 1956년 시점에서는 중수의학의 창시자들도 중국공산당도 토착적인 민간수의 그 자체를 근대 수의과학과 동등하게 과학적인 지식체계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이들은 민국 시기의 ‘전면적인 서양화(全盤西化)’를 추구했던 근대화주의자들과 스스로를 구별 지으면서, 전통수의사의 심오한 지식과 풍

55 가오귀징과 추이디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전기적 정보로는 다음을 참고. 于船·吳學聰·金重治, “總結民間獸醫經驗爲 發揚祖國獸醫學遺產的重要環節(1956年)”, 于船, 『于船文集』(北京: 中國農業大學出版社, 2003), 169-172; “全國民間獸醫座談會結束”, 『人民日報』, 1956. 9. 14.

56 이와 같은 ‘중수의학의 창시자 집단’의 구성원들의 상이한 지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이들이 동등하게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단일한 대오를 구성했다는 설명이 다소 평면적으로 일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전으로는, 수의과학자, 중하급 수의간부, 원로 민간수의 간의 단결과 협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며, 오히려 진정한 지적·사회경제적 구분선은 이들 집단 내부가 아니라 그 외부, 즉 ‘원로’로 인정받지 못한 대다수의 기층 민간수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어졌던 것 같다. 기층 민간수의사들은 ‘중수의학의 창시자’라는 지적 권위를 향유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소속 생산대나 인민공사의 가족들을 돌볼 뿐이었다.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장츠성, 가오귀징, 추이디성 같은 인물들이 중국농업과학원 중수의연구소의 부소장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동안, 대다수의 기층 민간수의사들은 때때로 동료 농민들로부터 무시와 하대를 당하곤 했다. 예를 들어,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 교외의 농촌 민간수의사 쉬요우간(徐佑澣)은 이웃으로부터 “하루 종일 돼지우리에 처박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힐난을 들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민간수의로서 쉬요우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어차피 돼지들은 얼마 못 가 죽을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본고가 다루는 시대적 범위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화대혁명 시대(1966-76)에는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의 지적 권위에 도전하는 쉬요우간 같은 기층 민간수의사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후속 연구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 徐佑澣, “全心全意爲牲畜保健事業服務 (浙江省1962年度農業先進單位和勞動模範代表會議文件)”, 필자의 개인 아카이브.

부한 경험을 단순히 ‘비과학적’이고 ‘봉건적인’ 것으로 폄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택한 경로는 민간수의학의 비(非)유물론적이고 미신적인 ‘찌꺼기(糟粕)’를 걷어내고 그 ‘정수(精華)’만을 취하여 근대과학의 언어로 성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정수’와 ‘찌꺼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전자를 과학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기초과학이 아닌 일종의 경험적인 응용과학으로 보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⁵⁸ 결국 중수의학의 존재의 이유는 가축들을 보호하고 균형 잡힌 사회주의 집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었다.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중국 전통의학의 이론체계와 인식론 일반을 보위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과학적인 중수의학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 체내에서 경락(經絡)의 해부학적 구조나 침술의 생리학적·신경학적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수의학적 치료가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병든 가축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⁵⁹

이처럼 전통수의학의 근대화란 곧 전통수의학의 실용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믿음하에,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우선 전근대 수의 고전 문헌에 등장하는 각종 개념을 근대 생리학 및 병리학과 통약가능한(commensurable) 것으로 전환하고자 했다.⁶⁰ 예를 들어, 위창은 고대 문헌에서 ‘금양(金瘍)’ 혹은

57 蔣次昇, “中獸醫團結合作正理發揚祖國獸醫學遺產爲畜牧生產服務: 蔣次昇甘肅省二次中獸醫代表會議報告”(1959), 甘肅省檔案館, 222-001-0223-0005.

58 蔣次昇, “學習祖國獸醫學術的初步體會和心得”, 中國獸醫學會中獸醫小組編, 『中獸醫學專題資料及研究報告彙刊』第1集(北京: 科學出版社, 1957), 11-12.

59 蔣次昇, 같은 글, 26; 蔣次昇·楊若, “組織編寫四本中獸醫書籍的收穫和體會”,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研究資料匯編』第2集(蘭州: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1963), 191.

60 물론 중국의학과 생의학 간의 인식론적 차이를 좁히려는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의 이와 같은 시도는 이 난제를 둘러싼 수많은 접근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가 전통수의학적 범주를 생의학적 언어로 번역하려는 창시자들의 노력에 주목한다고 하여,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양자의 차이를 중개하려 했거나 양자가 근본적으로 통약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역사적 행위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의학사 및 의철학에 있어서 동서 이원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구리야마 시게히사 지음, 정우진·권상욱 옮김, 『몸의 노래: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이음, 2013); Marta Hanson, *Speaking of Epidemics in Chinese Medicine: Disease and the Geographic Imagination in Late Imperial China* (New York: Routledge, 2012).

‘금창(金瘡)’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주로 파상풍에 걸린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증상의 유사함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그는 다소 느슨하게 전통수의학적 개념인 ‘금양’과 ‘금창’ 그리고 근대(수)의학적 개념인 ‘파상풍’이 모두 동일한 병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⁶¹ 한편, 말의 변비를 10개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총 70여 가지의 세부적인 증상들을 분석한 고대 수의 문헌을 접한 뒤, 장츠성은 이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비록 그는 고대인들의 “유산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십분 동감했지만, 그가 보기에 문헌에 기재된 수많은 증상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서로 중복되거나 쉬이 구별되지 않았다. 이에 장츠성과 동료들은 문헌 속의 각종 유형과 증상을 재분류하고 종합하여 새롭게 말의 변비에 관한 4개의 중수의학적 분류법을 확립했다.⁶²

서수의와 수의간부만이 이러한 번역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원로 민간수의사들도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근대과학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추이디성은 전통수의학의 가장 중요한 고전 중 하나인 『원형료마집(元亨療馬集)』⁶³에서 다루지는 ‘정(疔)’이라는 부스럼 혹은 종기 가운데 몇몇 세부적인 유형들이 말의 고삐를 채우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염증 증상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추이디성은 증상의 유사성에 입각하여 고전 문헌상의 질환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말의 신체적 이상을 단순히 등치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증상들이 특정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까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⁶⁴ 또 다른 원로 민간수의사 가오귀징 또한 전통수의학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문지식을 전달할 능력과

61 賈曼青·吳學聰·于船, “中獸醫對馬破傷風的治療”, 中國獸醫學會中獸醫小組 編, 『中獸醫學專題資料及研究報告彙刊』第1集 (北京: 科學出版社, 1957), 37-53.

62 蔣次昇·楊若, 앞의 글, 191.

63 『원형료마집』은 1608년(明 萬曆 36年) 유본원(喻本元), 유본형(喻本亨) 형제에 의해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고가 다루는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에 의해 1957년 정식으로 재간행되었다. 喻本元·喻本亨, 『元亨療馬集』 (北京: 農業出版社, 195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David W. Ramey and Bernard E. Roll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Veterinary Medicine Considered* (Ames: Iowa State Press, 2008), 29-30. 『원형료마집』이 조선 마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신동원, 『한국마의학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4), 246-256.

64 崔滌僧·熊三友 et al., “使用中藥辨證治療馬騾疔症的研究報告”, 『中獸醫科學技術資料選輯』 (蘭州: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1964), 96-100.

기꺼움을 갖추고 있었다. 말의 변비에 관한 자신의 임상 경험을 종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가오귀징은 우선 앞서 살펴본 장츠성의 새로운 네 유형의 분류법을 수용한 후, 각각의 유형에 맞추어 원인, 치료, 치료 이후의 간호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치료법들이 약 86%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⁶⁵ 가오귀징은 또한 『백락침경(伯樂針經)』에 기재된 말의 혈자리 63곳 가운데 서수의사와 일반 농민도 임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38개의 혈을 추려냈다.⁶⁶ 요컨대,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임상에서의 실제 치료 효과에 중심을 두고, 전통수의학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제 치료에 응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전근대 수의 문헌의 주요 개념과 처방을 재해석해 나갔다.

5. 전통수의학 과학화의 일단락

전통수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다음 단계는 근대화된 중국의학의 핵심 개념인 ‘변증론치’를 수의학의 영역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⁶⁷ 18세기 이래로 중국의 의사들과 문인들은 건강상의 이상을 다름에 있어서 ‘병(病, disease)’이라는 개념과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는 또 하나의 범주인 ‘증(證, pattern 또는 syndrome)’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⁶⁸ 느슨하게 발전되어 온 이원론적 질병 개념의 상호 대비는 1930년대에 이르러 보다 구체화되었다. ‘병’이란 세균론(germ theories) 이후의 서양의학 혹은 생의학(biomedicine)적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병인(病因, etiological factor) 및 병변(病變, lesion)과 관련된 범주인 반면, ‘증’은 중국의학적 범주로서 환자의 몸에 발현(manifest)된 개별적인 증상들의

65 高國景, “治療“起臥病”的經驗整理”, 中國獸醫學會中獸醫小組 編, 『中獸醫學專題資料及研究報告彙刊』第1集 (北京: 科學出版社, 1957), 54-59.

66 高國景, 『中獸醫診療經驗』第1集 (北京: 農業出版社, 1958); 金重治·于船, “值得重視的兩本中獸醫著作: 評《中獸醫診療經驗》第一集, 第二集”, 『于船文集』, 514.

67 변증론치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상세한 소개로는 다음을 참고. Judith Farquhar, *Knowing Practice: The Clinical Encounter of Chinese Medicine*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4). 또한 다음을 참고. Volker Scheid,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Plurality and Synthesi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200-237; Sean Lei, op. cit., 181-190.

68 甄橙, 『病與證的對峙: 反思18世紀的醫學』(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총체를 패턴화한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근대 중국의학의 종사자들이 보기에, 의사가 환자의 신체에서 ‘증’을 올바로 변별할 수만 있다면(‘辨證’), 그러한 ‘증’을 발현시킨 생의학적인 ‘병’의 원인이나 기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해당 ‘증’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治)을 강구해낼 수 있다(‘論治’). 이러한 변증론치의 방법론을 통해 중국 전통의사들은 양의사들이 원인과 기전은 알되 정작 치료는 하지 못했던 질환에 대해 유효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중의 집단은 변증론치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의학의 본질이 병리의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치료적 개입(intervention)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양의학의 위협에 대항하여 전통의학의 가치와 쓸모를 수호하고자 했다.⁶⁹

중국어의학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건강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론, 경락설, 장부론(臟腑論), 팔강(八綱) 등의 생리학적·병리학적 개념과 이론에 입각하여 이해되었다.⁷⁰ 동일한 인식론적·실천적 토대 위에서,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자연스럽게 중의학의 핵심 체계인 변증론치를 수의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중의학과 마찬가지로, 중수의학도 미생물학적 병인론에 대한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변증론치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체계로 이해되었다. 이를 통해 환원주의적으로 구체적인 원인과 병변에만 관계하는 서양 수의학과 달리 전체론적으로 환축(患畜)의 건강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⁷¹ 그렇다면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중수의사’란 기본적으로 변증론치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아픈 동물이 어떤 ‘증’을 앓고 있는지 진단한 후, 그에 맞추어 침, 뜸, 탕약 등의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하고 처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했다. 또한 창시자들은 만약 ‘변증’으로부터 도출된 특정한 치료법의 유효함을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전통수의학을 ‘과학’의 반석 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편, ‘증’이라는 범주를 반드시 ‘병’ 개념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20세기 중국에는 질병을 둘러싼 일종의 개념적 다원주의(conceptual pluralism)가 존재했으며, 당시의 행위자들에게 근대 생의학적 ‘병’의 범주, 20세기 이후 서양의학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확립된 ‘증’의 범주,

69 Sean Lei, op. cit., 183, 188-189.

70 Nathan Sivin, *Traditional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87); 蔣次昇·于船·方維煥, 『漢英中獸醫辭典』(北京: 農業出版社, 1991).

71 蔣次昇, “學習祖國獸醫學術的初步體會和心得”, 24-26.

그리고 ‘증’ 개념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전근대 수의 문헌에 등장했던 다양한 질병의 분류체계 간의 모호한 공존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⁷² 중수의학의 선구자들은 이상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질병 분류 체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별하려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련의 민간수의학적 치료법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중수의학은 어쨌든 정당한 응용과학의 한 분과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므로 민간수의의 과학화 및 중수의학 성립의 여정에서 논리적으로 후행하는 작업은 바로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대규모로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접근방식이 1950년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民国 시기에 전통의학을 근대화하고자 했던 과학자와 서의 집단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량의 실험 데이터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民國 시기의 실험은 대체로 전통의학 이론을 배제하고 유용한 약물만을 선택적으로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향성을 ‘폐의존약(廢醫存藥)’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의약학 이론들을 모두 기각한 채, 특정한 전통 약재가 특정 질병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약재 중 유효한 화학성분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진행하는 것이다. 과학자와 제약기업은 성공적인 실험 데이터에 입각하여 유효하다고 판명된 화학성분을 천연 약재로부터 추출하거나 인공적으로 대량 합성함으로써 신약을 개발해 판매하고자 했다.⁷³ 반우파투쟁과 대약진운동이 전개되던 195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마오쩌둥의 붉은 깃발 아래에서 자신들을 ‘국민당 반동분자’ 및 ‘자산계급을 따르는 과학자들’과 구별 지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후자가 취했던 ‘폐의존약’의 접근법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각종 중의 이론들, 특히 변증론치를 최초의 실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실험 사례를 살펴보자. 서수의 장츠성과 원로 민간수의가

72 民國 시기 중국의학의 과학화를 연구한 의학사학자 레이상린도 ‘증’과 ‘병’이 완전히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님을 설명한다. ‘증’은 “애초에 병 개념 일반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그 원인, 즉 [근대적] 병인론에 의해 [좁게] 정의되는, 새로이 고안된 존재론적 개념으로서의 병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Sean Lei, *op. cit.*, 184.

73 Sean Lei, *op. cit.*, 193-221; 朱緋·冠楠, “廢止中醫案對中獸醫發展的影響與獸醫國藥治療研究所的創辦”.

오귀징은 다른 중수의학의 창시자들과 더불어 돼지의 천식에 효과가 좋은 중수의 치료법에 관한 실험을 수행했다. 장츠성과 가오귀징은 우선 천식을 앓고 있는 돼지들을 충분히 조달한 후, 이들을 ‘변증’하여 각각의 ‘증’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으로 분류된 돼지들은 또다시 총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하나의 소그룹은 아무런 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으로서 기능했고, 나머지 세 소그룹은 각각 ‘논치’에 따라 침과 탕약 처치를 받은 돼지들, 서양 수의학적 치료법으로 간주된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이라는 항생제를 투약 받은 돼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 중약, 항생제를 모두 조합하여 치료한 돼지들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치료법들의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판단하기 위해, 장츠성과 가오귀징은 엑스레이 장비를 동원하여 돼지의 폐의 병변에 발생하는 변화를 시각적으로 추적했다. 결과는 침과 탕약이 양약만큼이나 효과가 좋으며, 특히 침, 탕약, 항생제를 모두 동원한 ‘중서결합’ 요법이 가장 두드러지는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었다.⁷⁴

이와 유사하게 설계된 수많은 실험들이 잇따라 수행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변증론치에 입각하여 젖소의 브루셀라병을 치료하는 데에 ‘가미균진탕(加味菌陳湯)’이라는 탕약이 유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미균진탕 처치 실험군, 양약인 베르베린(Berberine)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투약한 실험군, 세 약을 모두 사용한 실험군을 설정했고,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검사, 혈청검사, 부검을 실시하여 젖소의 체내에서 브루셀라 원인균이 검출되는지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소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 “가미균진탕이 베르베린 및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함께 처방되었을 때, 비록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젖소의 유산 자체를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했지만, 9달 동안 유산된 송아지의 사체 및 어미 젖소의 모유로부터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상의 [중서수의] 결합치료법을 통해 비교적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이 잠정적으로 증명된다.”⁷⁵

그러나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했던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처럼 체계적으로 엑스레이, 혈청검사, 부검 등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기층 농촌 수

74 高國景·蔣次昇·許登艇·瞿自明·袁永隆·師泉海·樊斌堂·弋振華, “關於猪氣喘病診斷和防治方法的試驗報告”,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研究資料匯編』第2集 (蘭州: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1963), 109-113.

75 盛彤笙 et al., “1962年乳牛布氏桿菌病治療試驗報告”,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研究資料匯編』第2集 (蘭州: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1963), 92-98.

의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간단하게나마 중수의학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흐름에 동참했다. 예를 들어, 동북 지역의 의사들은 장츠성과 가오귀징의 프로토콜에 따라 말의 소화불량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를 검증했다. 그들은 식욕 부진, 대장 연동(intestinal peristalsis) 저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말 94마리를 침으로 치료하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꼼꼼히 기록했고, 실험 경과 이틀 후 총 91마리의 말로부터 소화불량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출간했다.⁷⁶ 또 다른 사례로는 말의 변비에 대한 전통적인 탕약의 효능 실험을 꼽을 수 있다. 실험 설계자들은 탕약을 먹기 전후 양의 반추위 운동성(rumen motility)의 변화를 비교했다. 이들은 양의 반추위 수축 횟수를 직접 관찰·측정함으로써 해당 탕약이 실제로 반추위 운동을 촉진시키며 따라서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⁷⁷

요컨대,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중수의학적 치료법의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증론치 이론, 침술과 중약, 각종 양약, 엑스레이를 비롯한 일부 첨단 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실험을 설계했다. 물론 실험 설계의 엄밀성이나 동원된 장비에 있어서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중수의학의 과학성이라는 것은 예컨대 음양오행 등의 전통적인 언어보다는 근대과학의 언어와 방법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설계된 중수의학 실험들은 다른 모든 과학실험이 그러하듯 때때로 증명하고자 했던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기도 했다. 그러나 실험을 반복하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갈수록,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과 그렇지 않은 요법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중서결합’적 처방이 새롭게 고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점점 더 전통수의학이 과학적이면서도 임상적으로 실용적인 수의 지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간수의학을 중수의학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이들 창시자들의 노력은 번역하기, 다리 놓기(bridging), 재배치하기(rearranging), 간추리기(streamlining) 등이 임기응변적으로 짜집기(patchwork)된 일련의 역

76 楊進中·張祺, “針灸治療馬騾前膀閃傷, 纏腕痛, 脾虛胃弱, 傷水起臥, 牛肚脹種疾病初步觀察報告”,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研究資料匯編』第2集 (蘭州: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1963), 71.

77 梁兆年·余順祥 et al., “中獸醫治療騾馬結症有效方劑”, 『中獸醫科學技術資料選輯』(蘭州: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1964), 125.

사적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과 임의적인 취사선택을, 그리고 순수하게 전통적인 것도 근대적인 것도 아닌 중간적인 요소들의 창조와 동원도 포함하고 있었다.⁷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실험들이 수행되고 더 많은 결과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중수의학의 치료법 또한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량의 실증적인 데이터에 토대를 두고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일련의 공식화된 가족 치료 프로토콜을 제시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위와 같은 과정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실제로 전통수의학의 과학화를 수행한 주체는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을 비롯한 광의의 수의사 집단이었다. 이들의 지적 노동의 결실은 사회주의적 평등주의라는 이상에 따라 신속하게 중국 전역의 수많은 기층 수의사들과 일반 농민들에게 공유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집체 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었다. 1956년 “민간수의 지시” 이후로 수년이 지난 1963년 시점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수의 창시자들의 성취와 중수의학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무원은 다시 한번 ‘단결, 활용, 교육, 제고’라는 정책 노선을 천명했으며 중수의학의 체계적인 재생산, 보호, 그리고 발전을 약속했다. 이로써 사회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농업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지식이자 행위 주체라는 위상이 ‘중수의학’과 ‘중수의사’ 집단에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이다.⁷⁹

6. 나오며

지금까지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중수의학이 하나의 새로운 과학 분과로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⁷⁸ 이와 유사하게 의학사학자 린다 반스(Linda Barnes)는 1850년 이전 중국 의학을 이해하고자 했던 서양인들이 종종 “왜곡과 잘못된 등치(false equations)를 도입”했으며 또 “중국의학적 실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원용한 후 다시 써내려갔다”고 주장한다. 반스는 이러한 오류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왜 그와 같은 특정한 오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Linda Barnes, *Needles, Herbs, Gods, and Ghosts: China, Healing, and the West to 1848*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5.

⁷⁹ 周恩來, “國務院關於民間獸醫工作的決定”(1963. 8. 10.), 北京市檔案館, 145-001-00308-001.

농업경제사, 근대 중의학학사, 근대 수의학사 등의 선행연구와 연계하면서, 본고는 중수의학의 탄생을 부강한 사회주의 농업 강국을 만들기 위한 수의과학자, 민간수의사, 중국공산당의 노력 속에 위치시키고자 했다. 1956년 구체화된 당과 국가의 수의 정책은 그저 일방적으로 하달된 명령이었다기보다, 또 이후의 중수의학의 발전 경로를 그 자체로 완벽하게 결정지었다기보다, 민간수의사 집단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오랜 길항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당의 중의 정책이라는 선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중수의학은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던 응용과학이었다는 점에서 중의학의 발전 경로와 다소간 차이를 드러냈다. 중수의학의 사회적 효용은 주곡농업과 축산업이 균형을 이룬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 집체농업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부각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기층 민간수의사들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수의과학자, 수의간부, 원로 민간수의사 간의 단일 대오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은 ‘중서수의결합’이라는 당의 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함에 있어서 전통수의학의 초역사적 과학성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중국적·전통적 요소와 서양적·근대적 요소를 융합하여 혼종적으로 설계된 일련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중수의학, 특히 그 치료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다.

이상과 같이 수의사 집단의 주도하에 역사적으로 구성된 중수의학은 그 과학적 성과의 축적과 더불어 점차 제도화되어 갔다. 1957년 5월, 최초의 중수의 전문 잡지 『민간수의 통신(民間獸醫通訊)』이 창간되었으며, 곧이어 1958년 7월 1일, 간쑤성 란저우(蘭州)에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중수의연구소(中獸醫研究所)가 설립되었다. “당사자들이 주인이 된다(當家作主)”는 슬로건 하에, 그리고 수의과학자와 민간수의의 일체단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장츠성, 가오 귀징, 추이디성이 농과원 중수의연구소의 공동 부소장으로 임명되었다.⁸⁰ 중수의연구소라는 거점을 확보한 중수의학의 창시자들은 각종 이론 학습과 실험을 병행하는 한편, 향후 중수의학의 연구와 교육의 저변이 될 핵심 저서인 『중수의 침구학』, 『수의 중약학』, 『중수의 진단학』, 『중수의 치료학』 등을 주도적으로 출판했다.⁸¹ 이와 같은 성공적인 중수의학의 제도화에 힘입어, 중수학과 중수

80 소장직은 간쑤성의 당 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천위산(陳玉山)이라는 인물에게 돌아갔다. 所誌編纂委員會 編, 『中國農業科學院蘭州畜牧與獸藥研究所所誌, 1958-2008』(北京: 中國農業科學技術出版社, 2008), 1-8.

의학 창시자들의 위상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더없이 공고화되었다.

중수의학의 탄생 과정에 대한 본고의 사례연구는 오늘날 글로벌 과학사 연구의 추세 속에서 사회주의 중국의 과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유용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당의 입김과 혁명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과학 활동 전반을 통제 혹은 압살했다고 선협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전문가 집단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무엇을 왜 이루고자 했으며, 당과의 협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실천시켜 나갔는지 살펴보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개개인은 서구중심주의적, 전파주의적, 반공적·냉전적 편견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거와 현재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중국을 단순히 서구 주도의 ‘자본주의·식민주의적 과학’의 ‘피해자’로만 간주할 경우, 그리하여 사회주의 중국 과학사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한 데 묶어 ‘글로벌 사우스의 과학사(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Global South)’로 일반화해버릴 경우,⁸² 차츰 중화주의적 관점과 주장을 ‘전략적 본질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킬 위험성이 있다.⁸³ 그렇다면 아마도 이상적인 사회주의 중국 과학사(혹은 20세기 중국 과학사) 연구란 서구중심적 근대성/식민성(modernity/coloniality)⁸⁴에 대한 비판이 부재한 전파주의적 서사와 한족 민족주의(Han Chinese nationalism)에 대한 비판이 부재한 중화주

81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中獸醫針灸學』(北京: 農業出版社, 1959);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獸醫中藥學』(北京: 農業出版社, 1959);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中獸醫診斷學』(北京: 農業出版社, 1962); 中國農業科學院中獸醫研究所, 『中獸醫治療學』(北京: 農業出版社, 1962).

82 Sujit Sivasundaram, “Sciences and the Global: On Methods, Questions, and Theory,” *Isis* 101:1 (March 2010), 146-158; Clapperton Mavhunga ed., *What Do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ean from Africa?* (Cambridge, Mass.: MIT Press, 2017); Gabriela Soto Laveaga and Fablo F. Gómez, “Introduction,” *History and Technology* 34:1 (2018), 5-10.

83 각주 7과 8을 참고. 비판적 중국학 일반의 계보와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Fabio Lanza, *The End of Concern: Maoist China, Activism, and Asian Stud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84 ‘근대성/식민성’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nibal Quijano and Michael Ennis. “Coloniality of Power, Eurocentrism, and Latin America,” *Nepantla: Views from the South* Volume 1, Issue 3 (2000), 533-580; 월터 D. 미놀로 지음, 김은중 옮김,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그린비, 2010).

의적 서사라는 두 극단 모두를 경계하는 가운데, 그 중간지대에서 ‘과학’, ‘근대’, ‘전통’, ‘중국’의 의미를 나름대로 생산·구성하고 조화시키려 했던 다양한 역사적 행위자들의 분투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본고가 이러한 중국 과학사의 흐름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사례연구로 읽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 2021년 01월 26일, 심사 완료: 2021년 03월 14일, 게재 확정: 2021년 03월 31일)

Scientific Needles for Livestock Animals in Communes: The Birth of Traditional Chinese Veterinary Medicine in Maoist China, 1956–1963

Jongsik Christian Yi (Harvard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Maoist China's project of the "Integration of Chinese and Western Veterinary Medicines," focusing on how folk veterinary knowledge and practices were "scientized" and transformed into a new hybrid science called "Traditional Chinese Veterinary Medicine" in 1956-1963. Engaging with the literature on socialist science and the PRC history, it shows that a group of Western-trained veterinary scientists, veterinary cadres, and folk veterinary masters, or "TCVM pioneers," rather than the CCP itself, took a proactive role in this project. I also 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ruction of TCM and that of TCVM, arguing that the demand that TCVM as an empirical, applied science must serve the socialist collective agriculture shaped the latter in a distinctive wa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CVM's therapeutic efficacy was "scientifically" verified through a particular experimental design that embraced both "Chinese" and "Western" elements. These findings urge us to see the history of science in socialist China without normalizing the Eurocentric and "diffusionist" narrative nor propagating the Sinocentric and Han nationalistic counternarrative. In this vein, this case study provides a way of understanding the "scientific," "Chinese," "modern," and "traditional" in the framework of global history of science.

Keywords. Traditional Chinese Veterinary Medicine (TCVM), integration of Chinese and Western veterinary medicines,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western veterinary scientists, communist veterinary cadres, folk veterinarians